

신년사

‘금성옥진’ 화두 정하고 매진할 것



오시덕 공주시장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시를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고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도 지정하였으며, 공주 사극지구 국민안전교육 연구단지 건설, 율송 지구 대단위 개발사업, 민간아파트의 건설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2016년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의 국제화와 제62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주범연구소 설립, ‘공주 일발한우 브랜드’사업단과 농산유류 사업단을 출범시켜 우리의 고맛나루 쌀을 미주에 수출하였고, 공주 밤과 배도 대만, 베트남, 러시아 등 국외로 최초 수출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지난해 우리시는 35개 분야에서 수상 하였으며,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각 분야별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도는 초심을 유지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성과를 완성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금성옥진(金聲玉振)’으로 화두를 정하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알차게 추진해 넘버원 청양’



이석희 청양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청양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군정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매우 보람찬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로써 우리가 꿈꾸는 대망의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해 새로운 각오로 600여 공직자와 함께 계획된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여 넘버원 청양, 군민모두가 행복한 청양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김준표 아산교육장

존경하는 아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아산교육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 아산교육은 교육가족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아산의 자존심과 긍지를 한층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교 선정, 충남100대 교육과정 우수교육지원청,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11년 연속 ‘발명우수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우수교육지원청 등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산교육가족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님, 지역 사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은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안전과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소통과 공감의 청렴 교육행정 구현,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행통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결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 될 것’



정진석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였습니다.

시사대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북의 핵실험과 도발 그리고 어수선한 국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노심조사하게 만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제게 있어 지난 2016년은, 정치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땀 1년이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여·야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을 맡으며 국가의 안정과 안보 및 국방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회 등원 첫째,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집중했습니다.

공주시에는 제2금강교 건설, 부여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청양군에는 충남 소방복합단지 조성 등, 이를 통해 많은 언론으로부터 공주부여청양의 이례적 성과라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는 의회’



오인영 아산시의회의장

존경하는 32만 아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아산시의회에 보내주시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아산시의회는 새로운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책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생활현장 곳곳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해결하고, 침체된 경제 속에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의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2만 아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기관과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협력과 지원,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잡이로서 의회 발전시켜 나갈 것’



이종윤 당진시의회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참과 결단’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시민여러분들의 당진에 대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당진발전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여러분의 뜻이 더 많이 의정에 반영 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대 후반기의회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감시·견제 강화와 함께 시민의 소리를 듣는 등 효율적인 의정을 추진하였고, 특히, 찾아가는 이동의정실을 통해 지역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현장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생활 현장 찾아가는 소통 의회’



김영미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찬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에 보내주시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丁酉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

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주시의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 등의 회기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의 제·개정, 시정집의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소통하는 의회,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희망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례입법과 예산안 분석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활짝 열린 의회, 살기 좋은 공주’를 이룩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신뢰와 사랑 받는 의회 최선 노력’



이기성 청양군의회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

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먼저,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청양군의의회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청양군이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제7대 후반기 청양군의의회가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활발한 성과를 이루어나가는 도약의 시기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모든 의원들께서 온 힘을 다해 각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청양군의의회는 성숙된 지방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이끌며 국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행복한 청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의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행복한 나라 만들기 최선’



신명식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지난해 국민의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정농단이라는 폭풍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국가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지난 한해를 보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주도하였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요금 인하, 국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농민의 생계를 위한 쌀값 대책 등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가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대통령의 탄핵을 교섭단체 3당 중 제일 먼저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일 조정을 통해 탄핵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2018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개헌논쟁의 밑거름을 불렀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선,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국가개혁에 앞장 설 것입니다. 국정농단 공범 전원 구속 및 부정부패 물품, 재발개혁, 기득권 타파, 언론의 공정성강화, 국정교과서 폐기, 특권과 반칙 없는 교육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당 대전광역시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 상’



박선웅 동구의회의장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의회에서는 민생복리를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힘쓰겠습니다.

민생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 등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민에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과 봉사를 통해 구민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구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히 하여 정책을 확대개선하고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의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의회’



민태곤 유성구의회의장

존경하는 3만 유성구민 여러분!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으로 가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을 성취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한해정상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 모두를 두렵게 했던 경주의 지진발생, 그리고 사상최악의 조류독감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가적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 이름을 딴 새해에는 한 단계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3년동안 제7대 유성구의회는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이라는 구호아래 구민들의 불편척 복지향상을 통한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제7대 유성구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비롯해 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발판으로 인구 40만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유성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구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유성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 터’



이종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종태입니다. 2017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행복도시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건설하는 국가적 도시로서, 이 도시 건설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과 비정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문화와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기존 가격 위주의 토지공급, 법적 요건에만 맞춘 인허가 등 기계적인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공모, 공개 토론행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도시에 예술적 디자인 향상은 물론 첨단기술과 공병 등을 적용하는 등 도시 가치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변화와 미래를 위해 도시문화와 건축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시공·안전·품질 등 세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경청-소통 중심 행정 추진

권선택 대전시장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질 기원합니다.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이언스콤플렉스, 대전의료원 등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와 환경부 물 순환도시 선정 등 대전발전의 디딤돌이 될 많은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의 권력이 살아있는 시민주권의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함께 고민하는 경청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청의 리더십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지난 3년간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며 대전하겠습니다. 올해도, 경청과 현장행정의 시정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라는 원칙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의 뜻과 꿈이, 곧 시정운영의 동력인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의 꿈을 이루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는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특별시 기틀 공고히 할 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향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혁신학교 순환, 고교상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생배정방법 확정 등 학교혁신 기틀을 마련했고, 캠퍼스형 고교 부지 선정, 제2특성화고 및 복합형직속기관 설립 확정 등으로 미래 교육기반을 다졌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까지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의 모범이 되는 행복교육에 동력을 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 '신설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집중',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대 구축',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 정책추진과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어 교육특별시로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전 직원은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어졌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복리증진 · 지역균형발전 최선

권국상 예산시의회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열여덟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 합니다.

본격적인 내포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쟁력이 강하고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 머무르고 싶은 예산 다시 찾고 싶은 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뜻을 높이 받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들은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연구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상생의회를 만들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니오 감사합니다.

도민의 명령에 따라 도정에 최선

안희정 충남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또 다시 느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자연의 주기는 한 치의 어김도 없습니다. 새해 첫 태양은 어지러웠던 지난해를 밀어내고, 정유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아픔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광장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밝힌 빛이었고, 권위주의와 부패로 오염되었던 낡은 과거를 정화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로 전진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유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는 여러 도전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하자고 말씀드립니다.

2017년, 충청남도는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민을 믿고 의지하며 충청남도는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이끌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지 벌써 7년이 되어 갑니다. 한 순간도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준엄한 명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명령에 따라 도정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니오.

미래 100년 열어가야 당진 만들 터

김홍장 당진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어둠속에서 여명을 열어주었습니다. 닭의 힘찬 울음이 지난해의 아픔과 좌절을 이겨내는 희망의 여명으로 승화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니 민선6기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 4차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당진형 주민자치, 3능력신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 하나하나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가야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니오.

“군민의 행복시대 실현”

한상기 태안 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군민 여러분들 하시는 일 크게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저는 ‘군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항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중 마린니홍천 개발과 태안 관문기꾸기 사업, 만리포·만리포 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갈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정한 주민자치는 바로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저는 “군민의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6백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안정된 지역분위기에 속해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2017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신 일들 모두가 크게 성취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 중심 행복한 도시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힘차게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마음 속 희망이 현실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거센 시련 속에서도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세종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행정수도’라는 웅대한 꿈과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정치권과 협력하여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회본원 설치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는 7월에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시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의미 있는 행사도 개최하고, 그 동안의 성과 반성을 토대로 행정수도도 나아가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132개 안전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나 노력하면 잘 사는 사회, 세종시에서 시작해봅시다.

세종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제 관광도시 서산 건설”

이완섭 서산시장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2017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시가 하늘, 땅, 바다를 통해 사방으로 뻗어가는 사동팔달 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는 많은 성과를 올리며 오히려 밖에서 더 부러워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나로 화합하여 화살이 과녁을 꿰뚫듯 ‘서산발전’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내는 일화평중(一和萬中)의 자세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해뜨는 서산’이라는 활은 혼자서는 당길 수 없습니다. 17만 5천여 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당겨야만 쓸 수 있는 거대한 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활을 당겨 행복을 찾고 희망을 꿈꾸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곳, 그래서 시민 모두가 웃음 짓는 ‘해뜨는 서산’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을 펼쳐 삶이 풍요로운 농·축·수산 도시, 희망차고 건강한 교육·복지 도시,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도시,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관광도시, 편안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2017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니오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재도약

한현택 대전동구 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 더 밝은 내일의 시작을 알리는 정유년(丁酉年)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극심한 재정난과 산적한 문제들을 떠안고 시작한 민선5기 시작부터 우리는 좌초 위기에 놓여있던 동구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사력을 다해 배에 난 구명들과 갈라진 틈을 찾아 하나하나 메웠습니다.

동구가, 대전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1등 동구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삶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복지특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내면까지 풍요로워지는 문화·체육·관광·교육도시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구 발전을 향한 구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이끌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항상 웃음과 기쁨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교육적 난제들을 해결하며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역량 강화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일차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육공동체의 심리상담센터인 에듀힐링센터를 개원하여 선생님과 학부모의 마음건강을 지원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전국에 대전 놀이통합교육의 결실을 공유하고 확산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창의인성센터를 개원하는 등 최상의 대전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제언해주신 고견과 발전적 방안들을 정책방향 수립에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박차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존경하는 153만 대전 시민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녘 첫 울음으로 아침을 알리는 ‘닭의 해’를 맞아, 새해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픔이 견고하고 찬연한 여명의 빛이 가득차길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국가적 병폐와 환부를 저나라하게 목도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를 광장의 촛불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시의회도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첫째,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야 점포와 기업이 호황을 누리고, 청년이 어깨를 짊어지며, 더불어 도시가 생동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과 어르신 등 도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대전이 재난재해의 무풍지대라는 발상은 이제는 위험합니다. 여전히 유성지역에는 방사성폐기물이 대량 저장돼 있고, 지난해 말에는 10년 만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도 빈번합니다. ‘사후야방문’이 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미리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민 삶이 행복해지는 구정 펼칠터

정종태 대전 서구청장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구 공직자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뒤로하고 어둠속에서 새벽을 일리는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2017년도 새해 구정을 시작하는 오늘, 관심과 격려로 구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50만 구민 여러분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다해 주신 일선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정유년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유년, 서구의 구정은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의로 변화와 혁신에 노력하며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는가 시작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 50만 구민과 1,000여 공직자 모두가 큰 보람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이 대한민국 트램 도입 선도”

대전시 2017년 경제 성장 가속화로 행복키움 넘어 행복나눔의 시정 펼친다



본지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지난해의 시정평가와 2017년 새해의 시정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 들어왔다.

▲ 2017년 새해 시정 방향은
2017년은 ‘행복키움’을 넘어 ‘행복나눔’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조직과 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켜, 대전의 새로운 색깔과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충청권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공동 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청년 취·창업’, ‘도시재생’,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 혁신’ 등 4대 역점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데도 매진 하겠다.
민선6기 핵심 키워드인 ‘경청과 현장행정’을 보다 강화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대전의 시세를 키워서 시민 모두의 공동체를 더욱 다지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속도감 있는 ‘행복경제 1·2·3’ 등 경제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등 대전경제 성장 가속화에도 매진 하겠다.
특히, ‘트램’, 엑스포재창조 사업, (옛) 충남도청사 활용, 대전 의료원 건립 등

현안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평가한다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현안 사업 추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지난해는 ‘시민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으며 ‘경청과 현장행정’을 핵심기조로 ‘청년 취·창업,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 대중교통혁신’ 등 4대 역점과제 추진에 매진 했다.
그 결과, 지역현안 해결의 청신호가 켜지고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중 가장 큰 성과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 시범 노선(4월)과 본 노선(7월)을 발표하고 도시철도법 개정 등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SW융합 클러스터 유치(200억 원),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국가사업 반영 등 25건 이상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국일자리 경진대회 우수 등의 부평가에서도 총 48회 수상과 18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 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2조 6,477억 원도 확보 했다.

▲ 지난해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대해.
지난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시정에 상징적인 사업 25건 이상이 해결되거나 타결되면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4월에 삼수 끝에 유치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200억 원과, 대전국가방송국 유치,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선정 등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또,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국가사업 반영과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 및 목포·여수까지 연결로 침체된 서대전역 활성화와 호남권과의 단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과 옛 충남도청사 개발비 국비 확보(1억 2천만 원로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 지난해 시정을 펼쳐오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민선 6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트램 시범노선(4월)과 본 노선(7월)을 발표하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출(10월)하고 본격 협의절차 돌입했다.
트램 3월 가운데 기본법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이끌어 내고, 나머지 두 개법(철도안전·도로교통법)도 입법 절차 정상 진행 중이다.
또한, 청년대전의 DNA를 깨우는 것’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살자리, 실자리, 놀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키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청년실업률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청년 고용률도 44.7%로 지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경제 1.23 등 경제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률과 벤처기업 수, 연구소 기업 등에서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 도시철도 2호선(트램)에 대한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트램 도입의 철학적인 기반은 인본주의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같은 교통약자를 먼저 고려했다.
시의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2030년에 교통약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고 이것이 트램을 도입한 배경이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우려가 많아 걱정이었지만, 2년차에 접어들어 안정기에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 10여개도시에서 추진내지는 추진 검토중으로 응원군도 늘고 있어 내년에는 트램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난 11월 ‘2016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으며 국회의원,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교통관련단체,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대전트램 도입을 전국적인 의제로 만들고 대한민국 트램 도입을 선도해 나가는 위상을 얻게 됐다.

▲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은.
충남도청 이전 후 4년 여 만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문제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부지매입 부처를 문제부로 확정하고 2017년부터 매입절차에 착수한다
도청사 활용방안은 지난 12월 20일 공개세미나를 통해 발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메이커스 개념을 도입, 도청사를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문화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앞으로, 문제부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청사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 대전과 세종의 상생 방안은.
세종시로 유출 인구는 올 11월까지 5만1055명이며 '12년(4,160명), '13년(1,661명), '14년(11,352명), '15년(22,014명), '16.11월말(11,868명)이다.
세종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86개 기업이며, 이 중 용지계약까지 마친 기업은 15개 기업으로 알고 있다.
금년 6월을 기점으로 전출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유출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나, 세종시 주택 공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는 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이탈 방지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2020년까지는 10개 산업단지, 471만㎡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 지원 조례 개정하여 지역 내 이천전자 기업도 재정 지원으로 대전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에 노력 다하겠다.

▲ 대전시가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사업’ 주관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다.
지역의 전략산업인 ‘국방산업’과 ‘소프트웨어(SW)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국방산뢰성시험센터 유치에 이어 이번 사업도 유치해 명실상부한 국방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죽동지구를 중심으로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약 32㎞를 「국방 SW융합 클러스터」로 구축 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 대전시와 세종의 상생 방안은.
세종시로 유출 인구는 올 11월까지 5만1055명이며 '12년(4,160명), '13년(1,661명), '14년(11,352명), '15년(22,014명), '16.11월말(11,868명)이다.
세종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86개 기업이며, 이 중 용지계약까지 마친 기업은 15개 기업으로 알고 있다.
금년 6월을 기점으로 전출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유출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나, 세종시 주택 공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는 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이탈 방지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2020년까지는 10개 산업단지, 471만㎡를 추가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 지원 조례 개정하여 지역 내 이천전자 기업도 재정 지원으로 대전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에 노력 다하겠다.

이영희기자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21세기 부합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 문화자산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 조성 등 선정 추진해 나갈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제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대응, 지역 현안 국가 정책화 및 안정적 도정운영을 올해 도정운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안희정 충남도지사로부터 새해 도정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도정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충남도정은 그동안 원칙을 갖고 도정을 운영해 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도정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을 펼쳐왔다. 주권자인 도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라,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제한적·합리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모든 사회영역을 견인하는 정부만능주의는 한계에 봉착, 시장기능과 시민연대의식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부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현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상황을 주도하는 도정도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양성평등비전, 안전충남비전 수립 등 도민의 기본권 보장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지역경제생태계에 신성장동력을 이식하였고, 가로림만보호구역, 연안하구생태복원 등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공약평가 6년 연속, 지식대상 4년 연속 최우수 수상 등 자타공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으며 사상 최대 5조 3,108억원이라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정부예산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석문산 단선, 서산민항, 보령신항 등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SOC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이 모두는 도 공직자는 물론 210만 도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자부한다.

다만, 연초까지 이어진 초유의 가뭄, 구제역·AI 가축전염병 발생,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쌀값 폭락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을 했으나, 많은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 초래한 점은 아쉽다.

◆ 새해 도정의 어젠다는 무엇이며 추진할 핵심 시책은 어떤 게 있나?

2017년 도정은 지난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제19대 대선 관련 정국 이슈가 대두되고 정치·행정 영역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호호부흥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갈등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도는 민선 5~6기 걸쳐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코자 한다.

이를 위해 도정 운영 3대 핵심과제로 첫째,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정책화에 노력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누수 없는 도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도정운영 핵심 3대과제와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과제로 현재-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 문화자산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여건 조성 등을 선정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도내에 구제역과 AI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이 가축질병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 도의 방역여건은 지리적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요인이 높다. 사육환경 또한 '16년 3분기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약 215만두의 폐지를 사육하고 있고 천수만, 금강하구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위치하는 등 철새이동 경로의 중심축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아쉽게도 고병원성 AI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11월 23일 아산 신창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 아산지역에서 총 36건의 AI 양성농장이 확인되었고 이중 28개 농장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 32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한바 있다.

또한, 군 제독차량 및 광역살포기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저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50개소 설치·운영하여, 발생지역 10Km내 가금류 신규입식을 제한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근본적인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역 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통해 근본적인 AI·구제역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선 농가별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온·습도, 환기, 분뇨처리 등 축사환경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가축전염병을 근본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축을 생산해 내고,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마련하겠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육두수가 많을수록, 가축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는 도의 역할에 맞게, 우리 지역 축산업을 지켜 낼 수 있는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축산농가에서도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대상지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방조제 279곳, 폐염전 54곳, 방파제 47곳 등 도내 연안·하구 현황 전수 조사하고 시범대상사업 선정 및 복원계획 수립했고, 국가관리 대상호 해수순환 등 국가·지방 공동연구 제언(9.26)

(가칭)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 연구 및 입법이 추진 중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우리 도의 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농림부는 '용수공급 및 식량정책 혁신' 이 이유로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이해설득 노력으로 원론적 공감과 소규모 시범부터 시범적 복원 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원론적 공감하며 본사에 해양추진단 설치, 연안하구관련 연구 중으로 고파도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수부 주관으로 농림부, 환경부, 충남, 전남등이 참여하여 공동연구한 후, 결과에 따라 복원추진할 계획이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을 추진 중이다.

◆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토론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연구해 대한민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특별항만 지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과제가 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중심이다.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정현안집행자로서 좀 더 책임있게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도는 최근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발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리얼미터 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했다. 그동안 성과와 안희정 도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높은 지지율로 저를 돋보이게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론, 전국 광역자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어왔고 많은 성과 또한 창출하였다.

산업물류체계 구축과 충남 해양·항만 투자 유치에 집중해 나가기 위해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마련('15.12)하였으며, 「서산민항 사전타당성조사」가 제5차 광항 중장기 종합 계획에 반영('15.12.) 됨으로써 서해안권의 항만·물류·교통망 등 확충에 힘썼다.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16.2.22)하였고 충남인권센터 개소('16년말)를 앞두고 있으며, 밖에도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6.8)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그보다 도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있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으로 도정을 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의 철학과 견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견해를 달리 하는 이해당사자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내가 도지사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린다면 옳지 못하다. 저는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존의 정파적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 리더십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 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 3가지를 든다면?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합리적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정성을 통해 신뢰의 자산을 튼튼히 해야 한다.

◆ '양성평등 충남비전2030' 수립을 추진 하겠는데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여성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정을 재정립할 수 있다. 매년 도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해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도정을 새로 정리해 보았다. 같은 도정이라도 결이 달라진다. 물론, 제도, 도시설계 등 모든 분야를 여성,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 지난 한 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했다. 여성이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고, 육아와 생활에서 존중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대 목표로는 ① 동등한 참여 ② 돌봄 생태계 조성 ③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지역사회 ④ 자원배분의 성별격차 해소 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 등이 다.

도정의 문화부터 달라졌다. 아이는 지역 공동체와 직장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 임신하거나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긴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없어지고 있다. 나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 임신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 공직자들을 조직이 함께 성원해야 한다. 아이는 지역 공동체와 직장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분들의 육아는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청년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경우 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IMF회황위기('97년), 금융위기가 확대되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회초년생이자 후발주자로서 기존 경제사회시스템에 들어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문제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경우 청년문제의 심화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① 개인 입장에서 사회로부터 고립화, 자존감 하락 등이 나타나고 ② 사회적 전체 입장에서는 체제의 발전 가능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다만, 각 부처에서 기존 사업들을 '청년일자리정책'이란 이름으로 재구성하고, 사업의 양적 성과에 치중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회 보장 등 청년문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 중으로, 지방재정여건 한계 상 투입자원의 제약, 중앙정부 정책들과 유사·중복성, 단기·물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로서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 앞으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환기자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



공주소방서장, 전 직원 대상 특별 순회교육 공주소방서는 오영환 서장은 지난 28일과 29일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박병철 대전시의원, 대덕경찰서장에게 감사장 받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박병철의원(대덕구 3,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대덕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논산소방서, 중무식 행사로 2016년 마무리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본서대회의실에서 소방서 직원과의 용사상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중무식 행사를 가졌다.



대전충남병무청, 중무식 개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은집)은 지난해 12월 30일 중무식을 통해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선관위, 유광중 사무처장 취임



충청남도선관위 위원회는 1월 1일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유광중(劉光鍾, 만56세) 前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유광중 사무처장은 전북도선관위 관리과장·지도과장, 중앙선관위 기록관리과장·조사1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도립고 따뜻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선거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선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자로 4급·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불입과 같이 단행하였다. 김정환기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

청양소방서,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하고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동절기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충남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건수는 2013년 95건, 2014년 102건, 2015년 1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236건(74.4%)은 인접 가연물 적치 등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취급요령으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연통 연결부분에 청소구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청소 실시 ▲연통은 불연재료로 설치 및 구멍이 없도록 마감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 비치 금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전 연통청소 및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두지 말고 특히 보일러 주변에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엔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

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표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중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료료 등의

명목으로 2억9천2백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료료 명목 등으로 8천1백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한 경우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 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공

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벌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대학교, 정시모집 1,598명 선발

충남대가 2016년 12월 31일 오전 9시~2017년 1월 4일 오후 6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가·나군 1,598명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 834명, 나군 육군학전형 27명 등 정원내외 1,539명을 선발하며, 가군 해군학전형 26명과 가군 농어촌학생전형 3명 등 정원외로 59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수시미충원 이월 인원 359명을 포함하여 정시모집 전체 1,598명을 선발하게 된다. 2017학년도 정시모집은 2016학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동된 상황은 없으나, 수능 100%로 선발하던 사범대학에서 면접고사를 도입하여 2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종=이정복기자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 전 구간 완전 개통

두 도시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지난 9월 12일에 주요 구간을 개통한 바 있는 청주·남청주IC 연결도로 2개 사업노선을 12월말에 전 구간 개통했다고 30일(금) 밝혔다.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청이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도시와 청주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서, 행복도시 경계에서 갈산교차로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남청주IC 연결도로' 구간과 갈산교차로에서 청주시 석곡사거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 '청주 연결도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주 연결도로'는 행복청이 총

사업비 1670억 원을 투입하여 세종시 부강면에서 청주시 흥덕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0km의 4차로 신설 도로를 건설하였으며, 특히, 청주 3차우회도로와 연결을 완전 입체화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남청주IC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725억 원을 투입하여 행복도시 경계에서 부강면 부강교차로까지 총 3.3km구간의 기존 국지도

96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까지 전구간 6차로가 확보되었다. 이번 '행복도시~청주시 연결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행복도시와 청주시간 이동거리는 1.3km, 통행시간은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 세종과 청주시의 물적,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두 도시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정복기자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기주, 이하 충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3일부터 26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농관원은 특별사

법경찰 1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8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단체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3일부터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

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설이 임박해 수요가 물리는 시기인 16일부터 26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송병배기자

2017 정유년, 달라지는 것들

전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을 보장 확대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인하하고 대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청소년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한다. 7월부터는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기 어려운 섬 지역에 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한의학 진료를 추가한다. 음식물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부터 실시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김정환기자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 면허·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2~4월 모집·선발을 거쳐 5월부터 매일 입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병사들의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삼반기중 전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기준의 1.5배 이내이고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5월부터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6월부터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반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원산지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한다. 음식물 원산지표시대상이 16개→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판 크기(A4→A3) 및 글자 크기(30p→60p)가 커진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김정환기자



아산폴리텍대, 이명수 의원 초청 간담회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 이하 아산폴리텍대)는 30일(금)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학 교직원과 함께하는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갑) 초청 능력개발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백보현 행정처장의 설계보고, 교직원 간담회, 윤기설 학장의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은 아산폴리텍대 능력개발센터 건립을 축하하며 "아산폴리텍대 능력개발센터가 아산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기설 학장은 아산폴리텍대 능력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아산폴리텍대 능력개발센터가 4차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고용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소방서, 멀티소방관 수여식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는 30일 오전 9시 다양한 현장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직원 4명에게 태안소방공무원 수여식을 가졌다. 멀티소방관은 화재진압·구조·구급·운전으로 분류된 소방인력의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최적의 대응능력을 발휘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명의 멀티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현장 최 일

선에서 근무하고 소방관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소방관이 되기 위해 임용 후부터 틈틈이 시간을 내 소방관련 각종 자격 취득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멀티소방관 수여를 받은 소방교 한지택은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 능력과 지식을 갖춘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할 터”

핵심역량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 교사학습 공동체 확대 운영 계획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16년은 대전시교육청에 있어서는 상당히 뜻 깊은 한해였다. 국내 · 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돼 대전 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과들을 거뒀다. 특히 2016 시 · 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만족도 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특 · 광역시 1위를 차지하는 등 7개 평가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올 한해의 교육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2017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생 역량 강화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시도교육청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차고 갔던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 대전교육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정책을 연계하고 인성교육, 예술교육, 학교 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학습 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의 기본인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학생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석면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에 힘을 쏟고, 전국 상위 수준 급식 단가인상으로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과학적인 영양관리와 건강한 식단 개발로 질 높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교육복지로 교육의 기회 균등 정책을 펼쳐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 구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공약이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6년의 성과와 아쉬운점을 돌아보면,

2016년은 여러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교육공공체의 심리상담센터인 에듀힐링센터를 개원하여 선생님과 학부모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였고, 제 1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대전의 놀이문화교육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창의인성센터를 개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 시 · 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 달성, 전국 Wee센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부패방지정책평가 최우수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 우수 교육청, 정부 3.0 경진대회 대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분 초 · 중 · 고 전 부문 대상 석권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대전국제중고 설립 및 예지중고 학사파행 등 어려운 교육현안들이 있었고, 부실급식 개선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납과다 검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들이 제한된 점 등은 매우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교육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귀담아 듣고 그의견들을 정책방향 수립에 소중하게 활용하는 대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등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성과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을 하나 고르다면 어떤 것인가요?

지난해 우리교육청은 세계화시대,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교육청 교육활동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한 시 · 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7개 평가영역 중 6개 영역에서 우수인 평가를 받아 전국 최고의 교육청임을 입증하였고 특히, 교육수요자만족도 평가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특광역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비탕교육을 포함한 체험과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 꿈 · 끼를 지원하는 선진형 진로 · 진학지도,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수평가 인센티브로 LED전 등 교체 및 폭염 중 냉방비 추가지원으로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 인센티브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필자로 한 비탕교육을 중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탕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기초 · 기본교육의 중요성과 실질을 강조하는 대전교육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예쁜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학생들이 튼튼한 기초와 바른 품성을 갖추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비탕교육은 2016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특색사업 부문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더욱 풍성하고 앞장 결실을 맺으며 교육적 가치와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비탕교육을 실천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및 기본생활 태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비탕교육이 실천되어 튼튼한 기초와 바른 품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전환점을 넘어 공약 이행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취임 당시 발표하신 공약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혹은 미이행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다수의 교육적 난제들이 있었으나, 취임 당시의 공약들은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로 97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고, 대학체력프로그램 활성화, 놀이통합교육 운영, 학교회계적 고충안정화 처우개선 사업 등 24개 과제는 이미 공약이행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도 잘 추진되고 있어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비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 등을 절감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목표, 추진시기, 사업비 증액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약실현을 위해 소통을 통한 노력으로 매니페스토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약관리시민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19세 이상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20명의 시민을 위촉했습니다. 공약관리시민지원단이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을 함께 지켜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주민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공론의 장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가슴 깊이 새겨, ‘우문현답 실행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교육현장과 함께 하는 발로 뛰는 실천행정을 펴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약이행으로 시민과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



한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면 실시와 아울러 단가 500원 인상과 중학교는 3학년부턴 단계적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을 증액하여 총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무상급식 시행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을 맞았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1학년 2학기 운영학교가 총 86교로 97.7%, 2학년 1학기 운영학교가 총 2교로 2.3%에 해당되어 1학년 2학기에 집중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진로체험처 180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대전자유학기지원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학교-체험처간 진로탐색활동 매칭을 통해 48개 체험처 약 800회 진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진로체험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진로체험처 담당자 역량강화 협의회와 질 관리 연수를 4회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간 정보공유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총 14개교의 거점중심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우수 강사 인력풀을 구축해 단위학교 자유학기 활동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교육청은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자유학과 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전교육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의 더 큰 발전을 소망합니다. 지난 해 시 · 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 교육청 달성, 전국 Wee센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대전교육이 이루어 낸 모든 성과는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교직원 모두의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결실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인성, 학교예율,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학교 안전환경 조성과 질 높은 급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2017년 새해 현재의 교육을 바르게 정립하고 더 나은 교육방향을 제시하며,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힘 차게 달려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대전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학교 혁신 · 학생 중심교육... 참교육 실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016년은 충남교육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력증진을 이뤄낸 뜻 깊은 한 해였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올해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속의 마을, 마을속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충남교육의 역점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올해 충남교육청 역점 추진 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잠학력을 갖춘 미래 인재 키우기 ▲충남발성이 평등한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정밀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요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난 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잠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교실에서는 수업이 변하고 있고, 대학진입시 상담과 진로 설계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받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정책을 심화·확대하는 것을 물론 '학교속의 마을, 마을속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지난해에 충청남도 및 3개 시·군 지자체와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및 기본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새 학기부터 이들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통해 6개의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선정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거나 마을교사제 등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취임 이후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다시는 비리도 멎거나 상처받지 않는 교육청으로 만들어가겠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를 꼽는다면.

지금 충남교육청은 학교혁신과 잠학력이라는 두 개의 화두를 잡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혁신'이란 학교 운영의 중점을 학생들의 공부에 맞추는 것이다.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성적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속도보다는 방향을 찾아가는 교육이다.

또한 '잠학력'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장차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 일치하는 학력을 말한다. 이는 곧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모두를 위한 학력을 의미하기도 하다.

교육재정이나 학교 시스템 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교혁신과 잠학력 신장을 통해서 인공기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를 키우는 사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는 늘 아이들을 생각하고, 학생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기초학력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

▲취임 2년이 지났는데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취임 이래 학교혁신과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지난 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잠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교실에서는 수업이 변하고 있고, 대학진학 상담과 진로 설계에 대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받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실감하고 있다. 교실에서 질문과 배움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부를 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2014년 이후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 스스로가 어디까지 일등 했다는 것 자체를 별로 자랑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 부분만큼은 널리 자랑하고 싶다.

다만 혁신교육의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주변의 불만 섞인 충고를 들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묵묵히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지난 12월 27일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1년 유예결정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현장의 혼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1년 유예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공부하게 한다거나,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답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학교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하고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충남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연구학교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

국·검정 교과서 혼용방안도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교과서 발행 체계를 겸업정을 넘어서 자유교과서 체제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등 2-3개 후진국 나라들이 강행하는 국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태이다.

즉각 중단과 전면 폐기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학교혁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을 전환학기-자유학기-연계학기로 운영하는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

다. 또한 신규 운영 42개교와 선도학교 간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자유학기제 담당교사·교감·교장 대상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였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2016년 교실수업 개선 촉진을 위한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지원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수업준비OK」단을 구성하여 10개 교과와 중학교 1학년 수업 및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수업컨퍼런스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방법의 혁신, 내실 있는 체험활동의 전개, 나아가 자유학년제로의 전환 모색 등을 연구하고 실천할 생각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견해는.

누리과정 예산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어찌 세상 어느 부모나 교육자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차별을 두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인데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위반 방식을 총동원해 예산부담을 지방재정에 떠넘겼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천 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사실에 솔직히 말해 염두가 안 났다. 아이들을 빼서 뒷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황폐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12월 2일에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법안 통과되면서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부를 담보하지 못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관하여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3년간 한시적이거나 지원한 점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필요재원의 42%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점과 이마저도 3년 동안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그동안 충남교육은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이곳저곳 학교에서, 아이들의 얼굴에서 행복한 변화를 발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

2017년 새해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한다.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을 깨우는 닭처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 학생을 섬기고 이웃과 만나겠다.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새해, 새 뜰에 건강의 꽃,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날길 소망하며, 충남교육 새해 발걸음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담=이정복 정치행정부장

현대식 전통 가옥

1 전통정적 미

2 난방 미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경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더하기.

Modern Traditional Houses

3 정경미

4 정경미

5 정경미

6 정경미

BEST PLAN. 대담. 박정호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광역시 서구 오정동 454-6번지 2동

등정

신년교례회



김홍장 당진시장 = 2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남신년교례회에 참석.

시무식



한상기 태안군수 = 2일 오전 9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 시무식에 참석.

시무식



이석화 청양군수 = 2일 오전 9시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7년 시무식에 참석.

신년교례회



조중철 청양교육장 = 2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있는 대전일보사 주최 '2017년 제66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거점형 융합경제도시 건설에 813억 투입

당진시, 첨단 산업도시 육성·농업경쟁력 강화 집중

당진시가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거점형 융합경제도시 도약을 위해 813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사업과 예산은 ▲첨단 산업도시 육성 208억 원 ▲투자유치 활동 19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539억 원 ▲항만·해양산업 및 해양레저 육성 15억 원 ▲전통시장 지원 및 환경개선 16억 원 ▲일자...

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16억 원 등이다. 당진시는 첨단산업도시 육성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주력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지원과, 송산2일만산단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3농혁신 지역특화사업 ▲6차산업 컨소...

우리/동/네

한상기 태안군수 정유년 힘찬 행보

옥파이종일선생생기방문으로 새해 첫 일정 돌입
한상기 태안군수가 새해를 맞아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방문하며 정유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한상기 군수는 군 공직자와 군의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지난 1일 원북면 반계리에 위치한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를 방문, 신년참배를 실시하며 정유년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6기 '행복한 군민' 건설을 목표로 정유년 새해 군정운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한 군수는 이날 옥파 사당에 이어 총령사와 위령탑을 방문하며 새해 첫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군은 12월 30일 군청 대강당에서 한상기 군수와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종무식을 개최하고 한해를 마무리했으며, 한 군수는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일 년간 군정발전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상기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6기 태안군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며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태안군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 앞장



태안군이 지난 12월 29일 원북면 반계1리 마을회관에서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마를 육성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노인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4년 원북면 반계1리 마을을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하고 지역 노인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마을환경 정비 등의 프로그램을 3년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발표와 주민들의 작품전시 및 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발표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익힌 풍물과 노래 등을 발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노인 회원들이 손수 짠 목도리를 원북면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20여 명에 선물하고 성금 30만원을 기탁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벌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군은 이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통해 고사리 및 감자 재배 포플 조성,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영산홍 꽃길과 실내 안전화장실, 마을쉼터, 등산로 등을 조성해 마을의 환경개선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더욱 활력 넘치는 건강한 농촌마을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지역어르신 송년행사 실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12월 29일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17년 신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어르신 170여명을 모시고 송년행사를 실시했다.

2017년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당진시, 달라지는 제도·시책안내

당진시가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는 우선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변경돼 종전 인구수 50%, 도세 징수 실적 30%, 재정력지수 20%에서 도세징수 실적은 20%로 10% 줄고 재정력지수는 30%로 10% 증가한다. 주민등록 변경제도도 도입(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에 한정됐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지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영업자의 경우 종전 16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자의 경우 배합비율로 기존 2순위에 서 3순위까지 표시토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은 4인가족 기준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종전 439만1000원에서 446만 7000원으로 변경됐으며, 생계급여는 기존 29%에서 30%로 상향됐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금액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4만1,200원과 5만4,100원으로 인상됐으며,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도 전년 대비 중위소득이 1.73%로 인상됐다. 이밖에도 2017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구내방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 직불금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시행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탕정면 행복기움 공동방문팀 연계회의 열려



아산시 탕정면(면장 서정원)은 지난 29일 지역사회 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방문형 서비스사업 수행 담당자간 행복기움공동방문팀은 탕정면사무소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아산시 탕정면(면장 서정원)은 지난 29일 지역사회 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방문형 서비스사업 수행 담당자간 행복기움공동방문팀은 탕정면사무소에서 통합사례관리사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공동방문팀은 양양3동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아산시보건소,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아산노인종합복지관 등 민·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지적장애 3급 이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뤄졌으며, 회의 통해 장애 재진단 지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신청 등 공공지원과 한마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지원 연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정원 탕정면장은 "찾아가는 복지,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방문팀의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남양초 예술 특강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



남양초등학교(교장 양봉규)는 2016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은 인문학 예술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목원대학교 미술과 교수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박석신 화가 초청하여 본인이 직접 기획하여 활동 중인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표현한 이름을 발표하며, 자신의 꿈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소망을 말하였다. 박석신 화가는 학생들의 이름과 꿈을 조합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처음 본 학생들은 연신 감탄을 하며, 자신의 이름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담은 이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선생님

은 학생들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구를 적어주기도 했다. 우주비행사가 꿈인 6학년 김규 학생은 "두 팔을 벌린 만큼 하늘이 다"라는 응원 문구를 보고, 자신의 꿈과 딱 맞는다"며 "꼭 우주비행사가 되어 드넓은 우주를 자신의 팔을 벌려 품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42개의 작품을 만든 박석신 화가는 "남양이 아이들이 참 밝고, 꿈이 분명해서 감동 받았다"며 "남양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학기 꿈·끼탐색주간과 연계하여 실시된 이번 예술 특강이 학생들의 꿈 씨앗에 훌륭한 빛과 영양분이 되었길 희망해본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서아중, 서야해바라기 축제 열려
당진 서아중학교(교장 김인섭)는 지난해 12월 29일 본교강당에서 서야해바라기축제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1부 이웃돕기 아나바다장터를 시작으로 허브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체험과, 2부 출연예방 마술쇼를 체험하고 오후에는 개인화장품전시회와 반별 댄스경연대회가 펼쳐져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40 젊은 영농세대 경영개선 발표회

젊은 영농인 해외연수를 통한 변화된 나의모습 발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미래 청양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농업인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경영개선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201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2040 젊은 영농세대가 일본연수를 다녀온 후 각자의 변화된 모습과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공감,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추연구회 박종호 회장은 "일본의 깨끗하고 정리정돈 된 자연환경에 감탄하였으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에 환경을 정비했다는 데 놀랐다"며 "우리도 후손에게 물려줄 청정청양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민 4-H직전회장은 "일본연수 후 축산에 대해 현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빛깔을 소에 먹이기보단 땅에 환원해 기운을 돌리고, 양질의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건조나 풀을 길러 먹여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강상규 소장은 일본의 특화된 라면거리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청양에도 2040 젊은 세대가 특화된 마케팅과 특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양의 골목을 바꿔 1억 소득을 지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 등 각종 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주)아산성우하이텍 신창면에 온정의 손길



아산시 신창면에 소재한 성우하이텍(대표이사 이문영)은 지난 2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어달라고 신창면 행복복지센터에 5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일호프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주)성우하이텍은 매년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및 사회복지시설 후

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종범 공장장은 "앞으로도 지역 복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살피고, 신창면에 협조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지역 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줘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우리/동네

부여 미래 100년을 내다본다

이용우 부여군수, 2017 주요 계획 밝혀



이용우 부여군수는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한해가 될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화합의 포용력과 부지런함으로 지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며 "부여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부여 미래비전

2030 중장기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성장산업 육성, 명품관광도시 개발, 미래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부여 재도약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굿즈로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귀농·귀촌인 희망보육센터 건립 △세도면 백마강 용수 공급시설 확충 △로컬푸드 활용한 향토맛집 특화거리 △지역개발의 핵심축인 발전축인형 지역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1세기형 신(新)산업단지 조성 △새뜰마을사업,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조기 착공 △중부권 최대 롯데놀이공원 조기 착공 △전수구역 내 특급호텔 유치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강력 추진 △세계유산 ICT융복합 콘텐츠 구축사업 △백제고도 야경 트레킹스 프로젝트 등 역동적인 부여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군수는 "미래 신(新)성장 동력인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통해 우수기업 유치와 국내·외 관광객 유인, 장기적인 인구증가 프레임을 만들겠다"며 "교육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국립 한곡문화재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항공제조사산업단지 백마강 수변공간에 조성하여 우리세대보다 후손들이 잘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여의 특색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라는 투자라는 기본원칙 아래 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평생학습관을 완공하여 청년, 어르신,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만족하는 세대 공감형 복지도시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복지정책을 조화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구도역사마을 조성, 백제6대왕 승모전 건립, 송곡리 청동기마을 복원정비를 통해 백제역사와 선사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고 2017년 부여군정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역풍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고, 순풍은 발전의 속도를 더욱 내는 기회로 삼아 2017년 새해에 우리 부여가 더욱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열정을 쏟아 내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계룡시, 징수활동·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노력

계룡시, 징수활동·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노력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올해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적이 우수해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정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추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공매추진 실적, 변호관 영치율 등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체납차량 단속실적, 이월 체납액 증감률 등 분야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정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외부 경기 부양요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차량 상시 단속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징수목표액의 139%인 9억 여원을 징수했다.

최홍목 시장은 "징수 평가 2년 연속 수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에 협력한 시민들의 도움과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타 시·군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체납액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최우선 과제

황명선 시장, 13만 모든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 누리는 논산 만들 것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0일 오후 2시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2016년 마무리행사를 갖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중무식에서는 '2016년을 돌아보며', '동고동락' 동영상 시청, 2016년 국·도정 각 분야에서 시를 빛낸 부서 및 개인,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과 시민, 우수성과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표창과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황명선 시장은 송년사를 통해 "사람 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함께 만들며, '함께 하는 세상이 아름답다', '어떤이 함께 할 때 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논산시는 사람 중심 따뜻한 행복공동체와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며, "국내·외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선전하고, 시의 행정 수준은 한 단계 높아졌으며, ▲KTX훈련소역 설계비 정부



예산 반영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청소년 해외글로벌 프로그램 등 미래의 성장장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도 "사람과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며, 나눔과 배려로 하나가 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무식에서는 지역경제력 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의

약공공보건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위임사무 평가 종합1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 문화재보존관리 최우수, 재해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9개 부문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된 미래사업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전략기획실, 평생교육과 등 12개 부서가 시장표창을 수상했으며, 은진면, 성동면, 연산면, 연무읍, 범곡면, 양촌면이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또, 조용훈 강경전통맛집사업협동조합장과 63명이 지역발전유공 등으로 장관표창, 청장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관광체육과 임재용 관광진흥담당, 연무읍 성은미 주민생활담당이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가야곡면 심운주 주무관의 13명이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등을 수상했다.

계룡시 2016년 공중위생영업 베스트 우수업소 선정

4개소 선정... 다양한 홍보활동 등 인센티브 지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는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완

료하고 4개소를 베스트업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중위생업소들의 위생관리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짝수 해에는 숙박·목욕·제택업,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베스트업소를 선정한다.

작수해인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숙박업, 제택업, 목욕장업 등 44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해 ▲일반현황 ▲별적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40여개의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평가했다.

그 결과 숙박업 7개소, 제택업 2개소, 목욕장업 1개소 등 10개 업소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되었으며, 베스트업소는 이 중 업종별 업소수의 10%이내에서 고득점 업소로 선정했다.

시는 베스트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THE BEST' 우수업소'라고 적힌 로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정권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영업자에게는 자발적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에게는 건전한 고위생적인 공중위생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스트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호텔리어, 스포스 모델, 더샵리닝, 삼성세탁소 등 4곳이다.

천안시 두정도서관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 행사 운영

1월 테마 '시작' 가족독서나눔 만들기 등 프로그램 마련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일 년 열두 달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과 친숙해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한다.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은 두정도서관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2개 강좌 운영으로 1만여 명의 시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1월 테마 '시작', 2월 '우리 문화', 3월 '책 읽기', 4월 '과학', 5월 '나들이', 6월 '역사', 7월 '여행', 8월 '청소년', 9월 '우리명절', 10

월 '예술', 11월 '인문학', 12월 '도서관' 총 12개의 테마로 천안 시민을 찾아간다.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은 매월 테마와 관련된 추천도서 목록 제공 및 전시가 이루어지고, 추천 도서를 읽고 참여하는 독후이벤트 '책 속의 감동, 손글씨로 표현하기' 및 테마 관련 프로그램이 매월 공통으로 진행된다.

1월 테마인 '시작'은 '반갑다! 2017년'이란 주제로 새해 시작을 위한 응원 도서 목록 제공 및 새해를 맞아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카드에 적어 달아보는 '새해 목

표 카드 걸기'와 새해 독서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독서나눔 만들기', '나만의 독서달력 만들기' 행사가 마련된다.

1월 테마 추천도서는 1층 로비 전시대에서 볼 수 있으며, 추천도서 목록은 각 실과 로비에서 배포된다. '새해목표카드 걸기'는 오는 1월 6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두정도서관 1층 로비에 마련된 메시지 트리에 올해의 목표를 적어 달면 된다.

테마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1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세 이상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가족 독서나눔 만들기(재료비 8천원)와 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가

지 초등전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클레이아트 '나만의 독서달력 만들기'(재료비 3천원) 강좌를 운영한다.

참가 접수는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chonnam.go.kr/bcb>)에서 1월 5일(목)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두정도서관 관계자는 "열두 달 테마가 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 년 열두 달 도서관에서 불거리, 줄길 거리, 참여 거리를 제공하여, 늘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정도서관(041-521-3733)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의회-양계농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닭번개' 실시

천안시의회의장 전용하는 12월 29일 신방동의 한 식당에서 2016년 중무식을 겸한 닭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조류독감(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위회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것으로, 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닭요리를 먹으며 저녁을 함께 하였다.

전용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시

의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닭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안전하니 시민들이 닭고기 소비로 양계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우수성과 선정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식)는 'SNS(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활용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이 2016년 농촌진흥청 e-성과뱅크 TOP 5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발전과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성과의 신속한 확보와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16년 분기별 연구부문, 해외개발, 신기술보급 등 분야별로 우수과제를 평가, 선정하고 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SNS 활용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로 사향을 진단하고 해결함은 물론 농업기술, 강의 등을 지

속적으로 보급 확산시켜 실용성과 파급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이길구기자

통정

시장·군수 신년 영상하례회



구분영 천안시장= 2일 오전 9시 시청 봉서홀에서 개최되는 시무식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시장·군수 신년 영상하례회에 참석.

시무식



황명선 논산시장= 2일 오전 9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17년 시무식에 참석.

시무식



최홍목 계룡시장= 2일 오전 9시 30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무식 참석.

신년하례식



노박래 서천군수= 2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 시무식에 이어 11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지사 시장군수 영상회의 참석하고 12시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천발전협의회 신년하례식에 참석.

비전선포식



이용우 부여군수= 2일 오후 2시 부여문화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시무식 & 비전선포식에 참석.

서천군 2016년 중무식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앞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중무식'을 갖고 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

이날 중무식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장, 읍면장 등 3백 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도지사 표창 등 각 분야별 시상과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 행정의 최고담당으로 평가받는 으뜸공무원에는 정책기획실 김훈재 주무관, 사회복지실 도경미 주무관, 재무과 구중식 주무관, 농림과 박명수 팀장, 지역경제과 이길광 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박래 군수는 송년사에서 "2016년에는 신사문화재 건설 세부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서천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신청사 부지확정과 역대 최대 규모인 950여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며 "정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년에도 서천군이 새로운 원동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성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통정

2017 시무식



오시덕 공주시장= 2일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 시무식에 참석, 오전 11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 참석.

시장·군수 새해 영상인사



김동일 보령시장= 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도 시무식, 오전 11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장·군수 새해 영상인사 참석.

2017 신년인사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2일 오전 9시 서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7년 시무식에 참석, 오후 3시 서산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7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교례회



박동철 금산군수= 2일 오후 2시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년교례회를 갖는다.

제66회 충남신년교례회



이연주 공주교육장= 2일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남신년교례회에 참석.

금산소방서 제5대 이동우 서장 취임



“직원들의 화합단결로 주민들에게 최상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금산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1월 1일 새로 부임한 제5대 이동우 금산소방서장(57세)은 “지역 재난을 막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신뢰와 사랑받는 소방서를 만들겠다”며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산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가족의 힘을 모을 것이며, 청렴한 공직사회의 정착 등 앞으로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소방조직이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동우 서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지난 86년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공주소방서장과 도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하고 제5대 금산소방서장에 취임했다.

한편 이동우 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소방행정 전문가로 기획 및 행정능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며 자상한 성격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행정업무 및 현장에서 탁월한 지휘·통솔 능력을 발휘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둑하다.

금산=전정만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공주시 농업회관, 교육과 정보교류 원하는 농업인으로 북적

개관 4개월 만에 이용객 6천여명 달해

공주시 농업회관이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단체 등의 회의 장소로 각광을 받으며 개관 4개월 만에 6천여명이 이용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농업회관은 수준 높은 농업인 교육, 공주밤 가공유통 연구,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지원을 통해 공주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다기능 시설로 지난 2014년부터 시 예산 37억여원 포함 총 6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연면적 2165㎡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이다.

농업회관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70석 규모의 대강당 등 강의실 3개소, 공주밤연구



소와 6차산업화 사업단 사무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부대시설로 농업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회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창업 실습교육과정, 낮 시간에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을 위

한 야간 정보화 교육과정, 공주밤 6차산업화 역량강화교육 과정 등을 새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단체의 각종 회의와 중앙·도 단위 워크숍, 연찬회 등에도 문호를 개방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112건의 교육과 회의에 총 6444명의 농업인과 시민이 이곳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는 매주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거의 매일 교육과 정보교류를 원하는 시민들로 북적거리는 셈이다.

계통면에서 깐밤 등 밤가공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강소농 자용 학습모임체 최영만 대표는 “농업회관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 다양한 가공장비와 포장설비를 직접 가동해 보는 실습교육을 받음으로써 상품의 품질과 유통을 위한 포장 기술까지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알밤을 활용한 누룽지도 개발하여 특허까지 출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상태 농촌진흥과장은 “농업회관이 급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공주시의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2017 상반기 정기인사단행

서산시(시장 이완섭)가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공모연수, 명예 퇴직 등에 따른 후속으로 서기관 1명을 포함 승진 19명, 직무대리승진(요원) 9명, 전보 143명, 휴·복직·신규임용 26명 등 총 197명 규모이고 이와 별도로 조직개편과 맞물려 직위나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인원은 모두 340명이다.

시는 최근 주민지원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으로 배치하고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시민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했다. 시민생활국장은 이수영 주민지원국장이 유임됐고 신성장사업단장에는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이 승진 임용됐으며 기획감사담당관에는 박노수 동문1동장이 발탁됐다.

교육과전 대상인 조만호 공보전 신장담당 자리에는 박광주 체육진흥과장이, 신설 관광산업과장에는 이상득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예술과장에는 김세철 대안운영이, 대안운영에는 한옥희 문화회관이 첫 여성 담당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항만·항공, 고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청사 건립, 버스터미널 등 민선6기 하반기 역점사업을 위해 능력과 역량 위주로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관 국장, 단장 및 직속기관장 추천에 의한 발탁인사를 통해 부서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이윤래 시전 전보희망부서를 조시해 124명의 신청자 중 24%인 30명을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22명의 인사고충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 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민 중심의 해드는 서산 구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김경현기자



보령시 경제활동 평가 최적지 인정

웅천일반산업단 내년 본격 분양·청라농공단지 농공단지계획승인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표방한 보령시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600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2016년 전국 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진화성 평가’에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를 무작위 선정해서 설문 평가하는 ‘기업체감도’에서는 A등급인 10위(2015년 15위를, 조레나 제도 등 규제개선을 평가하는 ‘경제활동진화성’ 분야에서는 S등급인 31위(2015년 97위)를 차지했다.

시에서는 그 동안 50여 건의 조례 개정으로 기업 활동의 저해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한편,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기업인협의회와의 주기적인 만남, 매 월 시장이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 기업파트너제 운영으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온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는 석재 산업 쇠퇴 이후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보령 균형발전의 핵심인 웅천일반산업단지의 본격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에 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웅천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해 68만5400㎡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금속·기계 및 운송, 정밀·식품 공으로 구성해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획기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지원시설용지 1만7760㎡(17필지), 공원 3개소, 주차장 1개소로 배치했다.

입주 가능 시기는 2020년 이후로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공장건축이 가능해 시는 2017년 1월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3.3㎡당 약 4만 원대(추정)로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산업단지보다 최대 5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무장포 IC와 국도21호 4차선 확장 도로와 인접해 있고 군산항, 대산항, 평택항 등과도 40분~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최적의 물류 여건과 접근성이 좋으며 견고한 지반을 바탕으로 건축비 절감과 지진 등 만일 여기에 폐광지역 중심인 청라면의 청라농공단지도 올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한다.

청라농공단지 청라면 나원리, 내현리 일원의 12만8853㎡ 면적에 오는 2018년까지 148억 원을 투입해 식품·금속·전자부품·전기 장비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2014년 10월 타당성 조사 및 재정투융자심사, 2016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충청남도)를 완료했고, 2017년에는 충청남도로 농공단지 계획 승인 신청, 주민설명회,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문화재 시굴조사, 보상현황 등 추진해 7월 착공, 2018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라농공단지는 현재 4차선 확장중인 국도 36호와 맞닿아 있고, 건설 예정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청양 요금소와 인접해 있고, 인근의 군산항 및 대산항, 평택항과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는 등 최적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보령과 울진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국도 40호 확장 원안도와 안면도를 잇는 77호 국도 건설, 장항선 복선 철도 등 내륙과 수도권, 남부지역에서의 접근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여건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이번 상공회의소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웅천일반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의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편리해진 교통 접근성과 함께 분위기를 낮추는 다양한 노력으로 우수하고 견고한 기업들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농업경영인 금산연합회, 농업발전기금 기탁 (사)한국농업경영인 금산군연합회(회장 전해일)는 금산군 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농업발전기금 500만원을 금산군에 기탁했다. 전해일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금산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금산군산림조합 1000만원 후원

지역인재육성장학금기탁



금산군산림조합(조합장 김호덕)은 지난해 12월 29일 금산군청에서 박동철 군수, 조신영 금산교육시장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을 전달한 김호덕 금산군산림조합장은 “금산의 인재육성을 위해 산림산업 발전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금산군 인재육성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산림산업추진으로 선진산림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금산군산림조합은 2010년부터 총 6000만원의 후원금 기탁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금산=전정만기자

공주시, 2016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읍·면·동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체납액 징수실적, DB 구축실적, 자동이체실적 등 3개항목을 평가했으며, 신평동이 1위, 탄천면이 2위, 월송동이 3위를 차지했고, 장려상에는 계룡면, 신평면, 우성면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 90억 9천 5백만원 중 목표액 3억 6천 5백만원을 설정해 29억 3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불능자 등에 대한 2억여원을 결산처분하는 등 징수율 60.8%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읍·면·동과 세무과 전 직원이 분담을 지칭하고 징수할Day 운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주·야간 변호관 영치활동 확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650명을 선정, 은누리 상품권과 생활용품 등 지급하는 등 경품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주시 세무과 징수팀(041-840-8850) / 배현식 팀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서는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미리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2016 위임사무시·군 평가 시상식

서산시 우수기관 선정



서산시가 올해 추진한 위임사무에서 뛰어난 행정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위임사무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2단계 상승해 도내 8개 시 중 순위 상승폭이 가장 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로 평가됐다.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포함한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위임사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1천여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창의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위임사무시·군 평가를 대비해 지난 11월 14일 ‘위임사무 실적점검 및 실적향상 방안 토론회’를 열고 10개 분야, 29개 시책, 168개 평가지표의 실적을 점검했다.

서산=김경현기자

“공교육 내실화 · 혁신학교... 교육특별시 완성”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비전 실현 위한 행복교육에 동력 실어 나갈 것

최고진 세종시 교육감

2016년 세종시교육청은 세종 학교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한다. 혁신학교 8개교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고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도 11개교가 지정됐다. 2017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 방법을 확정했고 민주시민 교육 계획도 수립했다. 세종 캠퍼스형 고교 부지 선정과 제2특성학교 ·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확정 등도 세종의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으로부터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다. 다만, 국가가 특별법인의 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만큼, 특별법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교육청은 올해 마련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206억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국정화 강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온존케 한 처사이다.

1년 유예와 2018년 국 · 검정 혼용이라는 방안을 내세우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각 폐기하여야 마땅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볼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정화 정책이 민심을 무시한채 강행된다면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는 연구학교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국정역사교과서 정적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중학교대상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했다. 지난해의 자유학기제 어떻게 운영했는지?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지난 2016년 18개 중학교중 1개 학교는 1-1학기에, 17개 학교는 1-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118학급 2,570명의 학생의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조기 전면시행으로 안정된 운영 기반을 갖추고 모든 학교에 골고루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조직되어 교사들의 집단지성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등 세종시민의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PBL기반

경제프로젝트수업, 기록으로 만나는 대통령, 메이커교육 등의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우수 인재중에서 발굴 · 지원한 문화 · 예술 · 체육 분야의 마을교사가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과 코디칭함으로써 연극, 뮤지컬 등 자유학기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구축을 100%에 이르는 자유학기제학부모지원단의 전문적인 지원도 세종자유학기제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올해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교실수업개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사와 학생이 같은 꿈을 꾸는 수업을 위해 '동상동몽 세종자유학기제 수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과정 · 수업혁신 리더교원 양성, 대학 연계 학습공동체 협력교 운영, 수업축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수업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사를 수업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한 결과, 다양한 학생참여 중심수업 중 디베이트수업, 거꾸로 수업, PBL수업 등에서 특화된 학교들이 자연발생적 거점학교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자유학기제는 작은 규모가 강점이 되어 교사들의 자발성, 특화된 지역인프라, 우수한 학부모의 지원을 기반으로 교실의 변화가 이끌어 한걸음 한걸음 정착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자유학기제는 일반학기 연계 및 확산,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 등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세종혁신학교가 3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또한 앞으로의 혁신학교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나?

세종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 · 학부모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가 활성화된 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학교,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세종혁신학교가 추구하는 4대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2015년에 5개교, 2016년에 3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총 8개교가 운영했다.

2017년 새해에 소담초와 소담고가 혁신학교로 출발하면 총 10개교가 된다.

특히 소담고는 고등학교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고등학교별 특성화 다양화 운영 체제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운영 결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생지지를 포함한 생활공동체가 성장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업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타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이었

다면 2016년에는 학년, 교과, 주제별 운영되면서 실천하며 사례를 만들며, 세종시 혁신학교의 색깔을 찾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학부모 다모임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동아리 등을 통해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단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학교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이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며 수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며 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세종혁신학교 간, 혹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종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

▲2018년도 개교하는 세종예술고의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는지?

(가정) 세종예술고는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세종시의 예술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을 확정 ·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교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공립형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설립규모는 12학급 240명이며 설립과제는 음악과, 미술과(실용미술),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 4개학과이며, 각 20명 정원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종예술고의 교육과정은 예술적 재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인적 예술인육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학과별 전공교수와 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세종예술고 교육과정과 입학전환 자료 개발 TF'에서 개발된 자료 초안을 검토 중 이다.

학생중심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종예술고가 지역예술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세종예술고교육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세종예술고 개교지원단 TF 운영을 통해 우수교원 및 강사 확보, 특수시설 · 공사관리, 학생선발 전형계획 수립 등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세종예술고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고를 설립하여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 =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지난해 성과를 되짚어보면?

2016년은 학교혁신 3년차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에 맞춰진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였다.

혁신학교 8교의 순환과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지정 · 운영(11교), 2017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확정, 민주시민 교육 계획 수립 등으로 세종 학교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신설학교 적기 개교(7교), 세종 캠퍼스형 고교 부지 선정(6-3 생활권), 제2특성학교 및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확정 등으로 세종의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했다.

진로체험처를 추가 발굴하고, 대인지원 · 진학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형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했으며, 고교 무상급식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기준을 항목별로 확대하는 등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하는데 힘쓴 한 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의 변화가 학교 내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미래교육자문회의 등을 본격 가동해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학교 참여를 확대해 교육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취임 4년차인 2017년도, 역점 추진할 정책은?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주요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되는 교육특별시로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학교혁신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지표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에 동력을 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 공교육 내실화, 초중 교육과정과 수업 · 평가과정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동주책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설학교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에 집중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겠다. 그 예로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제 추진 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도록 시민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교육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보육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가운데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다.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재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올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한 것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지난 4년여 동안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8,600억원의 어린이집 일부 지원으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청양군 4년 연속 인구증가 달성

전년 대비 295명 증가...2020년 인구 3만5000명 달성 목표



청양군 인구가 2016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관내 인구수가 3만3333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5명이 증가해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64명, 2014년 160명, 2015년 277명이 증가한 상승세를 4년째 유지한 것이다.

출산을 감소와 고령화 현상,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청양군의 인구수가 증가한 이유는 민선5기부터 인구증가와 부자 농촌 만들기 등 2대 역점시

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인구는 청양군의 힘'이라는 명제 아래 ▲귀농귀촌 ▲출산장려 ▲기업유치 ▲보육복지 ▲장학금 200억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구시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실·과장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인구증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6대 전략에 대한 세부지침 추진을 위한 TF팀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체계를 확립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국제로타리3620지구 온양목련로타리클럽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컵 밥 후원



국제로타리3620지구 온양목련로타리클럽(회장 하경희)이 지난 28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전병관)를 방문해 식사준비가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세대

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컵 밥 42박스(100만원 상당)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하경희 회장은 "회원들과의 논의 끝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밥해먹는 것이 싫어서 종종 굶는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서도 먹기 편한 컵 밥을 준비하여 기증하게 되었다. 작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병관 동장은 "아직도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 굶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컵 밥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산=리량주기자

내포중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성료

연말연시 맞아...음악 통해 따뜻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



내포중학교(교장 조국행)가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2016 내포중학교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9일 열린 2016내포중학교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악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하늘 외 7명의 'B-Rosette, 꽃날' 현악 중주로 시작된 송년음악회에서는 웰로 솔로, 한국무

용 독무, 마술, 댄스 공연 등 내포중학교 학생들의 재능을 실린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다.

조국행 교장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홍성군청, 홍성교육지원청 등 여러 기관 덕분에 이렇게 음악회를 열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에도 방과 후 학교 활동과 진로체험 등을 펼쳐서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고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전홍식기자

한밭대학교, 창업 5개년... 산학협력과 창업역량 극대화 '본격'

계획 창업역량 및 수요조사 최종보고회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대학내 창업 관련 조직의 상호협력으로 산학협력과 창업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관련 집행위원과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밭대학교 창업 5개년 계획 창업역량 및 수요조사 최종보고회"가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밭대학교의 창업역량을 분석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창업교육 및 사업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학의 창업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한밭대 기획처를 비롯한 창업 및 산학협력 부서가 참여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흥재단, 대덕노폴리스벤처협회, 창조벤처연구소, 국가혁신훈련연구소 등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운영본부장의 <대학 창업과 연구개발 특구의 창업지원 제도>, 최준인 한밭대 기획처장의 <미

국 창업교육의 이슈> 특강과 한밭대학교 창업 5개년 계획 토론회 및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한밭대가 제시한 창업 5개년 계획을 위한 7대 핵심 목표는 ▲대학의 창업친화적 문화 정착 ▲한밭대학교 전 학생의 기업가 정

신 배양 ▲학생 경력 및 진로유형별 맞춤형 창업교육 실행 ▲대학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실행으로의 연계 활성화 ▲대학생 및 교수 창업의 양적·질적 고도화 ▲대학생 및 교수의 성공창업 모델 개발 및 확산 ▲창업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정착이다.

한밭대 최준인 기획처장은 "그동안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사업의 중박성, 실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학의 창업 및 산학협력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제 트렌드의 흐름에 발맞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에 학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선관위

정연운 사무처장 취임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일자로 사무처장(2급·이사

관)에 정연운(만 55세·사진)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정연운 사무처장은 올해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어느 누구도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관리함은 물론,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주권재민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건보공단 신입 대전본부장

임재룡 기획조정본부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보렴)은 단(이사장 성상철)은 1일자로 신입 대전지역본부장

에 임재룡 기획조정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임재룡 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고등학교(58회),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광명시 의료보험조합에 입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

사장, 법무지원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서울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재룡 본부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 23개 건보공단 지사와 9개 출장소를 총괄하게 된다.

송병배기자

인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 문화박물관센터장 조근래

■ 충남연구원

▲ 연구실장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연구위원 ▲ 지역도시연구부장 임준홍 연구위원 ▲ 산업경제연구부장 김양중 연구위원 ▲ 농촌농업연구부장 이관용 연구위원 ▲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연구위원 ▲ 문화관광연구부장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 행정복지연구부장 김종화 책임연구위원 ▲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방재성 책임연구위원

■ 충남대학교

▲ 교무처 교무과장 임연준 ▲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박기원 ▲ 교무처 학사지원과장 부철수 ▲ 학생처 학생과장 이정호 ▲ 기획처 대외협력팀장 김철일 ▲ 사무국 재무과장 김의중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지역본부 부본부장 ▲ 충남경영지원부 부본부장 김경선

■ NI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 부장·센터장·지점장·부지

부장·점장·담당·팀장 ▲ 충남영업부 부장 홍순광 ▲ 당진금융센터 센터장 최석동 ▲ 성환지점장 김영훈

※ 충남대학교·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권선택 시장, 새해 보훈공원·현충원 참배로 일정 시작 권선택 대전시장은 새해 1일 오전 보훈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당진 신생대,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 기탁 당진 신생대(총장 김병목)는 지난해 12월 28일 당진시 정미면사무소를 방문해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500만원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전달했다.



이옥자 전 간양대 교수, 간호대학신축에 발전기금 기탁 간양대 학교(총장 김희수)는 12월 30일 이옥자 전 간양대 간호학과교수가 건강사랑발전기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산씨사실관리공단·정영실과학관, 온양4동에 수익금 전달 아산씨사실관리공단(이사장 김문식)과 정영실과학관(관장 이상옥)은 지난 20일 폐기물발생 zero 실천참여'를 통한 수익금을 온양동 행복기움추진단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인회정 지사, 보훈단체장과 보훈공원서 참배 인회정 충남지사가 1일 정유년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충남보훈공원에 들러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백대기 상이군경회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도내 보훈단체장과 남경영 도 행정부지사, 허승욱 도 정부무지사, 실·국·원·본부장 등도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동행했다.



한화종합화학 대산사업장, 서산시에 성금 800만원 기탁 서산시는 20일 한화종합화학 대산사업장 강준구 팀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에 위해 써달라며 성금 800만원을 기탁받았다.



공주교육지원청, 소외계층 초·중학생 등에게 피복 지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자원을 연계해 한국전력공사 공주시 사립 공주시 세미회로부터 등교 피복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LX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표창 및 승진임용장 수여 LH한국도정보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기승)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적제조사사업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 및 승진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하신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大田투데이 전직원 일동